

# 온라인 멀티미디어 코퍼스의 교육적 활용 방안

## -일본어 문법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손영석(제주대학교)

### 1. 들어가며

컴퓨터로 처리 가능한 실제 언어사용데이터의 집합체를 의미하는 코퍼스(Corpus)는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상황에서 특정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언어교육에 있어서 활용가치가 높다.

하지만 구어체 일본어 교육의 경우, 이용 가능한 온라인 공개 코퍼스가 극히 드문 편이다. 이에 발표자는 「대담방송 코퍼스」(孫2010)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어체 일본어와 함께 그 발화 장면 영상·음성도 참조할 수 있는 ‘온라인 멀티미디어 코퍼스’(손영석2020)를 구축한 바 있다. 본 발표에서는 해당 코퍼스를 활용하여 실제로 진행한 일본어문법 수업사례를 소개하고, 학습자들의 코퍼스관련 요구 분석결과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 2. 온라인 멀티미디어 코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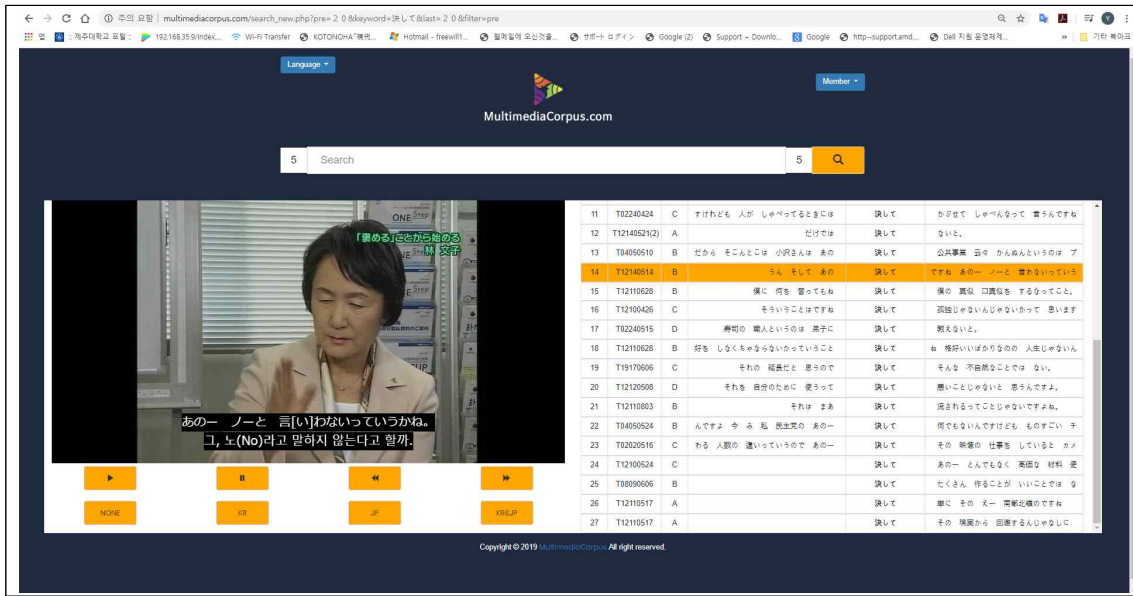
온라인 멀티미디어 코퍼스는 웹 사이트 ‘www.multimediacorpus.com’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에서 웹 브라우저<sup>1)</sup> 실행 후 주소창에 상단의 주소를 입력하여 접속하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 화면이 등장한다.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를 마치고 로그인하면 화면 중앙 상단에 용례검색기가 등장한다. 그리고 용례검색기에 찾아보고자 하는 단어·문법표현 등을 입력하면 검색이 실행된다. 예를 들어 용례검색기에 「決して」라고 입력하면 「決して」를 포함한 문장들이 <그림1>처럼 화면의 우측에 KWIC(Key Word in Context)형식으로 나열된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특정 문장을 클릭하면 「決して」가 발화된 시점의 장면 영상들이 화면의 좌측에서 순차적으로 자동 재생된다. 영상재생순서는 키워드(검색어)의 전후 문맥을 기준으로 조절할 수 있다.

검색 결과 제시되는 발화 장면 영상들은 2009년 3~8월 오사카 6개 방송국 7채널에서 방영된 106회분(총 23종류)의 텔레비전 대담방송이다. 검색은 각 방송에서 발화된 음성(약 40시간 분량)을 녹취한 문자화텍스트를 기반으로 이뤄지며, 검색결과는 「대담방송 코퍼스」와 동일하다(자세한 사항은 손영석2020 참고).

덧붙여 발화 장면 영상에는 이용자가 본인의 학습단계에 맞춰 한국어 혹은 일본어 자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막 제작 시 가독성을 중시하였으며, 상대적으로 학습단계가 낮은 학습자들을 고려하여 일본어 자막의 경우 모든 한자부분에 요미가나를 표기하고, 숫자부분에도 숫자 직후에 해당 발음을 표기하였다.

1) 2020년 8월 현재 주요 브라우저로는 크롬(Chrome), 파이어폭스(Firefox),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마이크로소프트 엣지(Microsoft Edge), 오페라(Opera), 사파리(Safari) 등이 있다. 이 중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2014년 10월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 표준안으로 확정한 HTML5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는 관계로, 발화 장면 영상·음성의 재생이 원활하지 못하다. 따라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제외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며, 다양한 브라우저 중에서도 신속한 업데이트를 통해 HTML5표준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크롬의 사용을 권장한다.



<그림1> 온라인 멀티미디어 코퍼스 검색결과 화면(손영석2020:59)

### 3. 활용 사례

#### 3.1. 과제 제시

J대학교에서 일본어문법관련 3학년 전공수업을 수강중인 3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멀티미디어 코퍼스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해당 수업에서는 益岡·田窪(1992)를 교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6주차 과정에서는 부사(副詞)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예정이었다.

교재에서는 일본어 부사를 「様態の副詞」「程度の副詞」「量の副詞」「テンス・アスペクト의 副詞」「文修飾副詞」「陳述의 副詞」「評價의 副詞」「発言의 副詞」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특히 진술부사(陳述의 副詞)의 경우는 소개된 단어가 많았다. 또한 개별 단어에 대한 설명 및 예문이 부족하여, 구체적으로 각 단어가 어떠한 문말표현과 주로 호응되어 사용되는지 등을 정해진 수업시간 내에 설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 6節 陳述의 副詞

1 文末의 「ムード」의 表現(Ⅲ部6章、7章参照)と呼応する副詞を「陳述의 副詞」と呼ぶ。例えば、(18)における「ぜひ」は、文末の依頼の表現と呼応する。

例 (18) ぜひこの問題を調べて下さい。

陳述의 副詞は、文頭に近い位置に現れ、文末のムードを予告する働きを持つ。陳述의 副詞には、次のような例がある。

◆疑問と呼応するもの: 「いったい、はたして」

例 (19) いったい、どうしてこんな事故が起こったのか。

◆否定と呼応するもの: 「決して、必ずしも、とても、とてい」

例 (20) この政策は、必ずしも市民に支持されていない。

◆依頼·命令、願望と呼応するもの: 「ぜひ、なんとか、どうか、どうぞ」

例 (21) なんとか助けてあげたいものだ。

(中略)

益岡·田窪(1992:45-46)

이에 먼저 교재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술부사의 개념 및 특징 등에 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나서 교재에 소개된 진술부사별로 담당자를 배정한 후 코퍼스를 사용하여 단어의 실제 쓰임에 대해 학습자가 직접 찾아보는 활동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진술부사의 경우 부사와 어떠한 표현이 주로 호응되어 사용되는지에 관한 이해가 학습의 주요 포인트라 할 수 있는데, 온라인 멀티미디어 코퍼스를 이용하면 검색결과가 KWIC형식으로 제시되므로 호응관계 파악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점도 진술부사를 과제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과제 제시에 앞서 파워포인트(PPT)로 작성한 과제 양식을 학습자들에게 전달한 후 양식에 맞춰 조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안내하였다. 과제 양식에 기입해야 할 사항은 ①진술부사의 사전적 의미, ②검색된 용례수, ③진술부사와 주로 호응하는 표현, ④진술부사 예문과 한국어 해석문 각 10문장, ⑤과제 및 코퍼스 이용에 관한 피드백 총 5종류이다.

덧붙여 코퍼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안내한 정보는 도메인 주소, 코퍼스 검색화면 구성, 이용 시 유의점(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에서는 동영상 재생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소요 시간은 대략 10분정도이었다. 안내 후 교실 현장에서 학습자 개개인이 소지한 스마트폰 및 태블릿PC를 사용하여 실제로 검색해보는 활동도 진행하였으며, 코퍼스 검색 과정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습자는 없었다.

### 3.2. 과제 결과 및 학습자 피드백

온라인 멀티미디어 코퍼스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조사한 진술부사의 리스트와 용례수는 표1과 같다.

<표1> 진술부사별 용례수

No	진술부사	용례수	No	진술부사	용례수	No	진술부사	용례수
1	いったい	33	11	おそらく	36	21	まさか	22
2	はたして	5	12	たぶん	202	22	よもや	1
3	決して	24	13	さぞ	0	23	なんでも	44
4	必ずしも	6	14	まず	191	24	まるで	7
5	とても	93	15	どうも	143	25	あたかも	2
6	とうてい	0	16	どうやら	3	26	さも	5
7	ぜひ	63	17	きっと	88	27	なんと	8
8	なんとか	84	18	必ず	90	28	なんて	95
9	どうか	79	19	絶対	140	29	もし	46
10	どうぞ	84	20	確か	113	30	万一	0
						31	かりに	26

표1의 용례수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은 표1이 진술부사의 개념에 대해 학업중인 학습자들이 판별한 결과로, 실제로 모든 용례가 진술부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なんとか」 「なんとなく」 등 과제대상이 아닌 단어가 용례에 포함된 경우가 있었으며, 「どうも」 「なんて」 등 일부는 「どう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なんて事はない」 처럼 진술부사이외의 용법을 갖으나 학습자들은 이들을 모두 진술부사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교수자는 과제물을 체크하며, 각 단어들을 검색하여 진술부사 여부를 검토하였다. 검색 결과를 대조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교수자와 학습자가 선별한 용

례수 간에 명확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료를 제작 및 배포하여 진술부사에 대해 보충 설명하였다.

과제에서는 진술부사와 주로 호응하는 표현 부분에 밑줄을 그어 표시하도록 하였는데, 수합한 과제 피드백에는 검색한 키워드(진술부사)를 기준으로 전후 문맥이 보기 쉽게 정렬되어 있어 호응하는 표현을 찾기가 수월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검색한 진술부사 예문 중 전형적인 예문 10문장을 선별하여 일본어 예문과 한국어 해석문을 병행하여 표기하는 활동도 진행하였다<sup>2)</sup>. 결과적으로는 용례 중 진술부사만을 가려내는 과정에서 많은 학습이 이루어졌으며, 영상에 한국어·일본어 자막이 제시되어 과제진행에 큰 부담이 없었다는 등의 긍정적인 의견이 상당수 있었다.

학습자들이 제출한 과제 결과물(과제 및 코퍼스 이용에 관한 피드백 제외)은 수정 및 보완 후 수업 게시판에 업로드하도록 하였다. 이는 각자 찾아본 개별 진술부사의 사전적 의미와 용례를 학습자 간 상호 공유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으로, 실제로 학습자들로부터 교재에 소개된 모든 진술부사들을 직접 찾아보지 않아도 특정 진술부사가 어떠한 표현과 주로 호응되는지 등을 알 수 있어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는 피드백이 많았다.

교수자 입장에서도 실제 예문을 통해 보충설명을 할 수 있어 수업진행에 도움이 되었다. 예를 들어 교재에는 「ぜひ」와 관련하여 단 하나의 예문(「ぜひこの問題を調べて下さい。」)만이 수록되어 있는데, 「~してください」뿐만 아니라 「~したい」「~していただければ」처럼 다양한 표현들이 「ぜひ」와 호응되고 있음을 코퍼스의 예문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 4. 코퍼스 관련 요구 분석

학습자들에게 코퍼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요청하였다. 해당 요청에 대한 학습자들의 의견을 유사한 내용끼리 모아 정리하면 표2와 표3과 같다.

<표2> 코퍼스 이용관련 긍정적 피드백

분류	의견 [응답자수]
코퍼스 전반	원어민의 발음(대화)을 귀로 듣고 어떤 장면에서 단어가 사용되는지를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공부할 수 있어서 좋다[16], 실생활에서 쓰이는 일본어를 공부할 수 있다[4], 공부할 때 잘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 같다[4], 회화체 일본어에서 단어들이 어떻게 발음되고 혹은 생략되는지 알 수 있다[2], 문장에서의 단어의 쓰임새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1], 회원가입과정이 비교적 간단하다[1], 홈페이지에 표시되는 언어를 한국어와 일본어 중 선택할 수 있어서 접근하기 쉽다[1]
코퍼스 자료	방송, 인터뷰 내용이 흥미롭다[2], 방송과 발화자가 잘 분류되어 있다[2], 다양한 상황을 볼 수 있어서 좋다[1]
검색 및 검색결과 제시방법	원하는 예문과 동영상을 간단하게 찾을 수 있어 편하다[13], 예문과 동영상을 같이 볼 수 있어 대화 내용 및 흐름이 더 쉽게 이해된다[9], 찾고자 하는 단어 앞뒤의 글자수를 조정하여 문맥을 파악하거나 어떤 식으로 호응되는지 쉽게 볼 수 있다[6], 검색결과를 조회하기가 편리하다[1], 앞 뒤 글자수 조절이 용이하다[1], 원하는 부분에서 정지할 수 있다[1], 찾고자 하는 단어를 치면 그 단어를 사용한 방송이 나오는 것이 신기하다[1]
자막	한국어 자막이 있어 유용하다[16], 일본어 자막이 있어 유용하다[10], 한자에 후리가나가 표기되어 있어 편리하고 사전 찾기가 수월하다[9], 자막 표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9]

2) 코퍼스에서 검색한 용례 중 전형적인 예문수가 10미만인 경우는 기타 자료 등에서 예문을 찾아 보충하도록 하였다.

먼저 표2는 코퍼스 이용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측면이 강조된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긍정적인 의견으로는 ‘원어민의 발음을 귀로 듣고 어떤 장면에서 단어가 사용되는지를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공부할 수 있어서 좋다’, ‘원하는 예문과 동영상을 간단하게 찾을 수 있어 편하다’, ‘예문과 동영상을 같이 볼 수 있어 대화 내용 및 흐름이 더 쉽게 이해된다’, ‘찾고자 하는 단어 앞뒤의 글자수를 조정하여 문맥을 파악하거나 어떤 식으로 호응되는지 쉽게 볼 수 있다’ 등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외에 자막과 관련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던 점에서 자막정보가 일본어로 진행되는 발화 장면 영상 시청 시 학습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부담감을 줄이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3> 코퍼스 수정 및 보완관련 피드백

분류	의견 [응답자수]
코퍼스 자료	아직 영상자료가 다양하지 못하고 자료수가 적다[14], 오래된 영상 자료이다[12], 찾고자 하는 부사에 따르긴 하나 용례수가 많지 않다[5], (특히 예능이나 토크쇼 등에서 가져온 예문의 경우) 대화 도중부터 시청하기 때문에 대화의 흐름을 파악하기 힘들다[2]
검색 및 검색결과 제시방법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 영상을 잠시 멈춘 후 다시 재생하면 다음 예시로 넘어가버린다[23], 재생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필요하다[15], 영상 하단에 시간바(timeline)이 표시되고, 시간바를 클릭해서 원하는 장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 더 편리할 거 같다[5], 영상의 재생구간이 짧아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힘들다[4], (예를 들어 문장의 후향만 듣는다면) 문장 단위보다도 더 세밀하게 재생구간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3], 가끔 래그(lag)가 있는 거 같다[3], 검색결과가 문장단위로 제시되었으면 좋겠다[2], 원하는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반복(repeat) 기능이 필요하다[2], 빨리감기(Fast forward)&되감기(rewind) 기능이 필요하다[1], (하나의 영상이 끝나면 다음 영상이 순차적으로 재생되는) 자동재생기능은 필요없다[1], 방송 정보가 표시되면 더욱 구분하기 쉬울 거 같다[1], 휴대폰에서 세로모드로 사용 시 예문목록을 손가락으로 터치해서 움직이면 움직임에 따라 목록도 슬라이드되면 좋겠다[1], 휴대폰에서 이용 시 예문을 보기 어렵다[1], 목록 정렬 버튼이 잘 표시되지 않아 실수로 많이 누르게 된다[1], 특정 기기(맥북)에서는 재생이 매끄럽지 않다[1], 일시정지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정지가 안 되고 0.5초~1초 정도 버퍼링 후에 정지가 된다[1], 핸드폰으로 접속 시 이용이 좀 불편하다[1]. 영상 등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없다[1], 단어에 주석을 추가할 수 있으면 좋겠다[1], (학습진행상황을 체크하는)진도표가 있으면 좋겠다[1]
자막	자막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4], 오타자가 있거나 해석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4]

반면 불편한 점 및 개선요구사항도 있었다. 먼저 코퍼스에 수록된 영상자료가 다양하지 못하고, 자료수가 적다는 의견을 들 수 있다. 특히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 영상을 잠시 멈춘 후 다시 재생하면 다음 예시로 넘어가버린다’, ‘재생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등 검색 및 검색결과 제시방법과 관련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의견 중에는 ‘영상의 재생구간이 짧아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힘들다’와 ‘(예를 들어 문장의 후향만 듣는다면) 문장 단위보다도 더 세밀하게 재생구간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와 같이 상반된 내용도 있었는데, 향후에는 재생구간을 (문장별 대략 1분 이내에서) 이용자가 직접 조절할 수 있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외에도 자막의 오타자 수정, 자막과 영상의 재생속도 조절 기능 추가 등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다.

## 5. 마치며

이상, 온라인 멀티미디어 코퍼스를 활용한 수업사례를 소개하고, 학습자들로부터 피드백받은 코퍼스관련 요구 분석결과에 대해 논하였다. 향후에는 다양한 교실 환경에서 다양한 언어항목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Bergmann & Sams 2012)에 필요한 온라인 학습자료로도 코퍼스를 활용할 계획이다. 덧붙여 요구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현존 코퍼스를 수정 및 보완함과 동시에, 외국어 교육을 목적으로 차세대 온라인 멀티미디어 코퍼스를 개발하고자 할 시 고려되어야할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고찰해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 손영석(2020) 「온라인 멀티미디어 코퍼스 구축 -일본 텔레비전 대담방송을 자료로-」 『日語日文学研究』 113, 한국일어일문학회, pp.45-66.
- 孫榮奭(2010) 「マルチメディア・コーパスの構築と活用—表現行動の計量的研究のために—」 『阪大日本語研究』 22,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日本語学講座, pp.65-90.
- 益岡隆志・田窪行則(1992) 『基礎日本語文法-改訂版-』, くろしお出版, pp.41-48.
- Bergmann, J. & Sams, A.(2012) *Flip your classroom: Reach Every Student in Every Class Every Day*. New York: International Society for Technology in Education, pp.1-122.